

# “행정체제로 들여다 본 전라도의 역사”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생활 터전 중심 '전라도의 탄생' 책 발간  
행정적·지리적 여건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독특한 역사 영위  
도→군현→면→리, 병영·수영→진영·수군진 행정체계 소개

“그 동안 전라도의 역사에 대한 대중서는 시군사(市郡史)나 사건사 중심이었다. 그러나 사건사는 방대한데다 난해하고, 사건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을 주제로 하는 측면 때문에 근원이나 유래를 도외시하는 한계가 있었다.”

고대에서 현재까지 전라도가 어떤 터전 위에서 생업을 영위해왔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덕진 광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펴낸 '전라도의 탄생-생활의 터전'은 한마디로 전라도가 걸어온 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김 교수는 “전라도라는 행정구역이 호남이라는 지역명과 결부돼 한국 역사에 존재한 지는 1천 년이 됐다”며 “전라도는 금강과 소백산맥을 경계로 충청도·경상도와 인접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리적 환경이 적잖게 다르다”며 “이러한 행정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독특한 역사를 영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그는 전남문화재단문위원, 호남고문서연구회 회장,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와 같은 이력이 이번 책 발간에 큰 도움이 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 발간을 계기로 최근 김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소탈하면서도 담대해보이는 인상이 인상 ‘전라도 사람’이었다. 그동안 ‘인물로 본 전라도 역사’, ‘전라도 역사 이야기’, ‘남도문화’ 등과 같은 책을 통해 지역사 연구에 매진해왔던 터라 낯설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전라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언제나 변화의 선봉에 섰으며, 협동을 통해 학문을 공유하고 국난을 극복했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아니 전라도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원래는 전라도 정명 1천년에 맞춰 책을 발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업이 80% 정도 진척됐을 때 원고량이 너무 많아 두 권으로 나누기로 방향 전환을 했다. 그래서 1권은 생활 터전, 다시 말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다뤘다. 올해 하반기에 나올 2권은 ‘생업의 현장’을 주제로 농업, 수공업, 어업, 광업, 상업 등을 다룰 계획이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 이번 책은 도→군현→면→리, 병영·수영→진영·수군진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소개한다.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도 차원의 통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도의 행정을 총괄한 전주감영, 전라도를 고려했던 왜구, 육군 지휘를 총괄한 강진병영, 수군을 나누어 지휘한 좌수영·우수영 등 네 가지를 수록했다. 또한 오늘날 목포시와 군산시의 모체가 수영 아래의 수군진이었다는 점도 살폈다.”

그는 전라도 안에 있던 군현과 군현의 통치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한다. 특히 “104곳에 이르렀던 고려의 군현이 조선에 들어와서 57곳으로 통폐합됐고 일제강점기 때는 다시 38곳으로 줄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또한 당시에는 행정 중심지로 읍내를 두고, 읍내 안에 각종 관공서와 제단을 설치했다. 일부 군현은 거대한 읍성을 쌓아 웅장한 성문을 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김 교수는 어떻게 지역사 연구에 매달리게 됐을까. 고등학교 때 역사 수업이 재미있어서 역사에 매료됐다고 한다. 역사 교사로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부족함을 느껴 대학원에 진학해 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 는 것이다.

그는 “본래는 조선시대 경제사를 전공했는데 요즘에는 시급한 지역사 연구에 매달려 본래 전공은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웃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역사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디딤돌을 놓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근현대사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자료집이나 인명록 등을 구성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연구자는 갈수록 고갈되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대학 교수 또는 외지인 채용이 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조상들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많이 남겨주었다. 그것들 대부분은 19세기말~20세기 초에 사라지고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남아 있는 것이라도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아시아의 문화수도인 광주를 방문하게 돼 기쁩니다. 광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청 광장에 제 작품이 설치돼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200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만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1931~2019)는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마이클을 통해 올려 퍼진 그의 목소리에선 미세한 떨림도 전해졌다. 국제 디자인계를 주무르는 거장의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날 멘디니가 기자들 앞에서 긴장한 이유는 디자인비엔날레 출판작인 ‘미래도시광주:기원’ (기원)이 광주의 상징조형물로 시청 앞에 영구전설되기 때문이다. 디자인비엔날레가 끝난 이

은 인증샷을 찍으려는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뤘었다. 또한 광주송정역에 설치된 캐노피 ‘빛의 꽃’과 순천만 국가정원의 전망대로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며칠 전 광주시청 앞을 지나다 멘디니의 ‘기원’과 마주쳤다. 시청 주변을 지날 때면 멀리서도 눈에 띄는 조형물 이건만 이날은 웬지 가슴 현란이 싸해졌다. 늘 바람에 필력이던 물방울 무늬 천은 잠잠한 듯 했다. 아마도 지난 19일 8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의 얼굴이 떠올라서였으리라.

하지만 단지 감상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기원’을 애물단지로 여기는 광주시의 근시안적인 행태가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7억5000만

## 시청 앞 ‘멘디니’

후에도 자신의 ‘본신’이 광주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와 부담이 교차했던 듯 했다.

당시 그는 디자인비엔날레 참여작가 가운데 가장 ‘핫’한 스타였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디자인분야에서는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통하는 거물이다. 그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 디자인, 동화처럼 따뜻한 스토리가 담긴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1993년 양말을 가지게 커는 듯한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와인 따개 ‘안나 G’는 1분에 1개씩 팔릴 정도로, 바로크의 의자에 화가 폴 시냐의 화려한 색점(dot)을 찍어 만든 ‘프루스트 의자’는 세기의 명작으로 꼽힌다.

사실 그는 광주-전남과 인연이 꽤 깊다. 광주시청 앞 광장의 ‘기원’은 물론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프루스트 의자’를 출품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행시기간 내내 ‘프루스트 의자’ 앞

원을 들어 높이 20m의 7개 탑으로 제작된 ‘기원’은 당초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 등 각 계절별로 다른 옷을 입도록 디자인됐다. 하지만 조형물의 유지·관리비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봄-가을에만 외피를 교체하는가 하면 그마저 ‘예산을 축낸다’는 이유로 철거를 고민하기도 했다.

최근 광주시는 ‘예술여행도시 광주’를 모토로 본격적인 예술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스타작가의 조형물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예술관광’ 운운하는 게 여전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엇보다 생전 광주에 각별한 애정을 보인, 거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불거리를 찾기에 앞서 ‘숨겨진 보석’들을 가꾸고 알리는 행정의 디테일이 그립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한국 시단 이끌어가는 시인들의 작품 오롯이

안도현 시인이 엮은 ‘이 시를 그때...’

“시를 쓰지 않지만 시를 읽는 일로 생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훨씬 시인에 가깝다. 그는 세상의 모든 말과 우주의 예상치 못한 기미를 날카롭게 알아챈다. 그는 좋은 말 한 마디, 빛나는 문장 하나를 품고 있어도 하루 종일 외롭지 않다. 그는 풀잎 하나 흔들리는 걸 보고도 뭉클을 띤다.”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안도현 시인이 특별한 시집을 펴냈다.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모약)에는 안도현 시인만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가려 모은 65편의 시가 담겨 있다. ‘가만히 외우고 싶고 베끼고 싶은 65편의 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명작 그 자체다.

시집에는 황동규, 이성복, 정희성, 천양희, 도종환, 송찬호, 함민복, 김해자, 장석남, 문태준, 손택수, 박성우 시인에 이르기까지 거장부터 중견과 신진을 아우른다. 한마디로 한국 시단을 이끌어가는 쟁쟁한 시인들의 빛나는 작품이 수록돼 있다. 각각의 시들은 서정파 서사, 감성이 어우러진 감동을 선사한다.

안도현 시인은 시면들의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를 특유



의 섬세한 언어로 소개한다. 해설을 통해 독자들은 또 다른 시적 질문과 만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발견하면서 시를 읽는 즐거움은 배가 된다. “오동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아이 하나가 다가온다/ 동그랗게 말아 쥘 아이의 손아귀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린다/ 애야 그 손/ 풀어/ 매미 놓아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평생 우는 손으로 살아야 한단다”(유홍준 ‘우는 손’ 중에서)

“우는 손”은 아이의 손아귀에서 우는 매미 울음소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안도현 시인은 “아이에게 매미는 신기한 놀이지만 매미에게 아이는 저승사자다”며 “풀어는 단 두 글자인데 매미라는 미물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한다”고 평한다.

이처럼 작품집에 수록된 시에는 삶의 터전 곳곳에서 길어올린 웅성 깊은 사유가 서정적 언어로 수놓아져 있다. 시집에 수록된 안도 현청산도 출신 신철 화가의 따스하면서도 개성적인 판화작품도 보는 맛을 더해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문직여성 광주·무등클럽

촛불의식의 밤 28일 ACC디자인 호텔

전문직여성 광주·무등클럽 (회장 한은주·김성미) 촛불의식의 밤이 28일 오후 6시30분 ACC디자인 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대 한은미 부총장과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양화숙회장의 축사에 이어 광주여성재단 염미봉 대표와 광주재능기부센터 하상용 센터장이 각각 ‘전문직 여성의 길을 묻다’와 ‘전문직 여성의 길을 나누다’를 주제로 특강한다.

광주와 무등클럽은 차세대 리더십 멘토링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차세대 여성문화 CEO만들기와 음식인문학의 향연,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리는 남도주전부리 먹거리 상품 ‘천년에(愛) 미(米)당’ 개발 등이다.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에는 전국의 20개 로컬클럽이 소속돼 있으며 전세제 110여개국 40만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김성미 무등클럽 회장은 “매년 2월 갖는 촛불의식은 여성의 고용창출과 권익향상, 기회균등을 소망하는 연맹의 정신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바르고 공정한 사회,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꾸꾸고 기쁘게 바라며, 과정이 민주적인 평화롭고 살맛나는 광주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3월1일 5·18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가, 유관순 여사와 광주수피아 출신의 독립운동가 윤철녀 열사를 기리며 통일을 염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

## ‘2019년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공개 모집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2019년 인생나눔교실’에 참여할 멘토봉사단을 공개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은퇴한 선배 세대와 성장하는 후배 세대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쌍방향 멘토링 프로그램 ‘인생나눔교실’을 올해도 운영한다.

올해로 5년째인 이 사업은 호남권 등 5개 권역에서 활동할 멘토봉사단 200명

을 선발해 군부대, 자유허년제 시행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최대 15회 멘토링 활동을 하게 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3월 26일까지 호남권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www.mcst.go.kr)와 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